

날짜: 5786 년, 9 월 6 일 (2025 년 11 월 26 일)

토라 문: 나아가다

주제: 유배의 토라

창세기 28 장 10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미드라시는 야아콥(야곱)이 결혼했을 당시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가 아버지 이즈학(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 63 세였습니다. 그 후 에벨(에버)의 학당에서 14 년 동안 은둔하며 공부를 하였고, 이어서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7 년간 노동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84 세에 결혼한 셈이 나옵니다. (63+14+7=84)

웜의 증손자인 에벨과 노아의 아들인 웜은 토라 가르침을 위한 예시바 (서당)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서당은 본래 웜과 에벨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으나, 기원년 2158 년, 곧 야곱이 50 세였을 때 웜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에벨만 생존하여 야아콥은 그의 서당에서 14 년간 수학한 뒤에 하란으로 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당시 야곱은 77 세였습니다.

탈무드 메길라 17a 는, 야아콥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2 년 동안 부모를 평상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의 아들 요셉과 동일한 22 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에벨의 서당에서 공부한 14 년에 대해서는 그 계산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시기가 야아콥의 영적 성장에 있어 필수적 배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며, 그 필수적 교훈은 부모 공경의 의무보다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준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일한 장의 탈무드는 야아콥이 부모의 집을 떠난 나이가 63 세였다고 명시합니다. 그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즈학께 여호와의 토라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섬겨야 하는 명령을 지체하면서까지 왜 또다시 14 년을 에벨의 학당에서 공부해야 했는가를 점검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앞서서 서당에 들어서 여호와의 토라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비유합니다. 아무리 토라 공부하는 것이 위대한 미츠바(계명)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계명 앞에서는 뒤로 양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랍비 야아코브 카메네츠키는, 에벨의 서당에서 야아콥이 더 배운 가르침이 지닌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야아콥은 집에서 구별되고 보호된 환경에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즈학, 그들의 제자들, 어머니 리브카와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란이라는 타락한 세속적인 환경, 라반의 집이라는 부정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타락한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한 층의 토라를 배워야 했고, 그것은 바로 웜과 에벨의 토라의 서당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웬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홍수 세대를 가르며 살아냈고, 에벨은 하늘에 닿는 치솟은 탑을 쌓아 여호와 엘로힘께 반역하려 했던 바벨의 혼돈의 세대 속에서 살았던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웬과 에벨은 의로움을 지키고 수보하여 내신 그 시대의 의의 현인들이었으며, 오직 그들만이 야아콥에게 부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지키는 방도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

브라함이라는 의인을 아버지로 두셨던 이즈학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환경을 접한 경험이 없었기에 그 부정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가르침에 있어서 야아콥을 위한 직접적인 가르침의 역할을 그의 에벨 만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아콥이 에벨의 서당에서 보낸 시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명을 이행하기 위한 본질적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 또한 야아콥이 하란의 부패한 영향에 물들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에벨의 탁월하신 삶의 가르침을 먼저 흡수함으로써 그는 부모의 본래 의도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합당한 루라브와 에트로그를 사오라고 했을 때, 아들이 먼저 서당에서 어떤 것이 합당한가에 관한 규례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버지의 요청을 이행하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웬과 에벨의 서당에서의 영적 준비 없이는, 야아콥은 결코 부모의 지시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드라시의 설명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미드라시는 야아콥이 웬과 에벨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전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웬과 에벨에게서 배운 토라를 강조하며, 아버지 이즈학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토라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다른 아들들에게도 토라를 전수했을 텐데 왜 요셉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아콥이 선진의 토라를 모든 자녀들에게 전수했음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땅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아콥은 그의 자녀들을 그 유배에 대비시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부패한 이방 땅, 미쁘라님(이집트) 에 가장 먼저 진입할 운명을 지닌 자였으며, 그러인하여 그가 홀로 그러한 악한 환경에서 미혹들을 견뎌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뒤따라 미쁘라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고 열어야 할 책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아콥은 웬과 에벨에게서 배운 '유배지에서 지켜 내야 할 토라(가르침)'를 요셉에게 특별히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두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질투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즈학 선진들의 토라로 충분했던 것이었으며, 요셉에게는 유배의 토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유배지에서 거룩히 구별된 경건한 삶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토라가(가르침이) 하란에서 야아콥을 견딜수 있도록 지탱해 주셨던 것과 같이, 미쁘라임에서도 요셉과 그의 길을 따라갈 네웨술(영혼들)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13-27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아도나이 여호슈아 마쉬아흐로 말미암아 엘로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여호와] 엘로힘의 토라/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세속인]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4-25